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 가닥

소득 상위 20-30% 제외 가능성...급여 수준은 진통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액의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지급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다.

지급대상 범위와 관련해 위원

회에서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주는 의견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은 소득 상위 20-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6천 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데

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과 구체적 지급방법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차등지급 방안과 관련해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게 주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60%'에게 지급하느냐 또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느냐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지난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노인빈곤 해결이란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빈곤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하위 40%까지는 애초 공

약대로 다른 조건 없이 월 최고 20만원씩 지급하되, 소득 하위 41%에서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만-18만원씩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지급수준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충돌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침이슬

언론인의 세상 읽기



김종일 (前 KBS광주 보도국장)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내 맘에 설음이 알알이 맺힐 때/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한낮에 쬐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 지라/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얼마 전인가 했는데, 벌써 두 주가 지났다. 6월6일 현충일, 한 TV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눈과 귀가 꽂혔다. ‘아침이슬’이란 노래로 시작된 ‘불후의 명곡 현충일 특집’이었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시작한 채널돌리기 근 한 시간여 만에 고정된 채널이자, 채널돌리기로 폭발 직전에 이른 사람, 누구겠는가? 지근거리에서 상시 나의 행동을 감시, 제어하는 여자, 아내의 신경을 안정시킨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에 들을 만 해서 채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했다.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그러했겠지만, 가슴에 강한 느낌이 와 닿으면서 순간 순간 가슴이 먹먹해 짐을 느끼고, 괜한 상념에 빠져 들기도 했다. 제작PD의 의도 이상으로 과하게 느꼈던 것 같다. 이런 것 보고 요즘 시세 말로 오버한다고 하던데, 어쩔든 그랬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감정을 추스르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는 모습, 그 이유, 나이가 더 해가면 남자가 여성스러워 진다하던데, 그래서 일까?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왜 일까? 몇 가지 나름 생각되는 이유를 서툰 글 솜씨로, 여기 써 보아야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알은 수를 써 본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고 느껴 보자는 것이다. 엉뚱한 것이지 싶지만 사상최초(?) 신문으로 노래 듣기를 시도해 볼까 한다. 아니 서두에 아침 이슬의 가사를 적어 놓았으니 이미 시작했다 하겠다. TV를 통한 노래 감상보다 오히려 신문을 통한 노래 듣기가 노래 말의 의미 전달에 더욱 효과적이다 함이 나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누구의 머리 위에 이끌거리나/피땀 투쟁의 흐름 속에/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누구의 앞집에서 흰 비지나/ 찬란한 선조의 문

화 속에/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거래여/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우리가 간직함이 울지 않겠다 (내나라 내겨레)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러던 지난날들도/다시는 오지 말라고/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거칠은 들판에 솔잎 울리리라/우리를 가진 것 비록 적어도/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라/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삼복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내가 위로해 줄게/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내가 눈물이 되리/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내가내가 내가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허전하고 쓸쓸할 때/내가 너의 벗 되리라/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나는 너의 친구야/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나는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질절한 노래 소리, 현란한 악기음, 휘황한 조명, 리드미컬한 몸놀림,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노래 듣기, 하지만 노래 말 속에 있는 뜻을 헤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듣고 보고 지나 칠 때 보다 읽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다.

가사를 적지 못한 그날의 노래로 ‘아름다운 감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푸르른 날’ ‘행진’ ‘젊은 태양’ ‘서울의 모정’ ‘사랑으로’ 등이 있었다. 이 노래들의 의미, 과거 우리 삶의 굴곡진 상황과 변화 의지, 미래 삶에 대한 기대 등이다. 이러한 것들 엉당 노래에 담이지는 것이고 그냥 노래일 뿐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면 이들 노래 말의 의미 대부분이 큰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삶을 바꿔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시대 상황을, 삶의 환경을 개선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힘들 때 견딜 수 있도록 노래 말에서 보듯 손을 내밀고 잡아준 여러분이 있었고 미래 보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았으며 이웃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이지 싶다.

과거 삶의 모습인 노래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 없는 노래일까? 그 의미를 오늘에 되살림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일까? 아직 우리 사회, 더 변해야 하고 고통으로 힘든 이웃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미소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 장정의 초석을 이룬 5·18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함은 산자의, 그리고 그들 희생의 과실, 민주를 얻어 사는 이들의 의무이리라 생각한다. 그 래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6월, 이 노래 듣기를 빼 놓을 수가 없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

J프로젝트 삼포지구 외자유치 실현되나

道·中황회해그림 투자협약

전남도는 18일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가운데 핵심인 영암 삼포 2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1년여간 총력전을 펼친 중국자본 유치가 물거품 된 곳으로서 투자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외자유치단은 이날 중국 산둥성에서 황회해 투자지주집단유한공사(이하 황회해그림)와 솔라시도 삼포2단계 개발사업에 10억 달러 투자를 주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황회해그림은 삼포2단계 부지 내에 카지노와 호텔, 상업, 업무, 주거시설, 자동차부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회해그림은 앞서 지난 5월 초 광국신 회장 등 사업단이 한국을 방문해 현지답사와 전남도와 실무 차원의 간담회를 여는 등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쳤다.

이 그림은 중국 산둥(山東)성 황회해발전센터 기구의 산하 국영기업으로 에너지산업, 금융업,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중국 중건 건설 그룹인 중대건설과 2천5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물거품된 바 있다.

/김재정기자2k@kdaily.com



차지사, 중국 태산관광단지 시찰 투자유치와 관광, 농업분야 교류촉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8일 이기병 도의원, 송영중 투자정책국장 등과 산둥성 태산시 관계자의 안내로 관광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줄인다

기사에 비용전가 금지...‘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

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www.greenpw.co.kr www.semenergy.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 (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 그린파워 광주충판 1577-8905. 010-3611-825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예초기 더이상 쌀순 없다!

동력예초기 다이신 양수기 신다이와 엔진톱 에코 비료 살포기 동력분무기 이동식

KEANG 계양 엔진 농기계 총판

취급 품목
▶ 스프링클러 ▶ 고성능분무기 ▶ 예초기 ▶ 양수기
▶ 수입농기계 ▶ 비료살포기 ▶ 소형농기계 ▶ 소형엔진 호스

심야공시
● 구.현일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 구.현대국정

삼아상강(주) * 광주매장: 광주시 서구 77-3 우진④ 건너편 골목 T.062-362-4048
* 남평매장: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431 T.061-333-4048